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9월 29일(목) 총 3매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 정신건강팀장 함춘영 ☎440-1581 • 담당자 심연희 ☎440-158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자살률, 전년대비 0.6명 감소 ... 전국보다 낮은 수준

- 인천시 자살률, 2020년 26.5명 → 2021년 25.9명 -

- 심리지원상담 강화, 생명지킴이 양성 등 안전망 구축이 성과로 나타나 -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자살률이 전년대비 0.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2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사망 원인통계에 따르면 인천시 자살률(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은 25.9명으로 2020년 26.5명보다 0.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전국 자살률 26.0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년(25.7명)보다 전국 자살률이 증가한 상황에 거둔 의미있는 성과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인천시는 14위를 기록해, 2020년 10위였던 것과 비교해 크게 낮아졌으며, 8개 특·광역시 중에는 6위를 기록해 최근 10년 이내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는 인천시가 자살 예방을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 동안 인천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심리지원 상담 등 도움 체계를 확대해 왔다.

특히 올해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한 ‘내일도 맑음’ 힐링콘서트에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동을 전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기도 했다. 또한 택시, 학원, 약국, 병원, 종교계 등 생명지킴이를 양성해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자살고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인천시는 2022년 자살예방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았으며, 특히 ‘생명사랑학원’ 사업은 2022년 우수 자살예방사업으로 선정돼 2021년 ‘경인아라뱃길 시천교 안전난간 설치’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자살예방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김석철 인천시 건강보건국장은 “이번 자살률 감소는 인천시와 시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인천시는 1인 가구와 노인의 자살예방과 심리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마음건강자가진단 및 온라인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